

# 2006년 하반기 산란계 동향과 전망

- 노계도태 여하에 따라 경기 좌우될 듯 -



한국양계축협 경제상무 이 홍 열

## 산란계농가의 계획생산이 필요한 시기

'03년도 12월 12일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이후 양계업 전망은 아주 어두운 상황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04년 3월 20일경 경기양주를 마지막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종식되면서 계란가격이 고공행진을 시작하여 05년 3월 계란발표가격이 특란기준 147원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05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계란의 생산비이하를 반복적으로 형성되면서 '03년 이전의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계란의 대량소비처인 대형 할인점에서 다시 계란이 미끼상품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으므로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형유통업체만의 책임은 아니고 우리 생산자의 계획성 없는 양계업의 생산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04년 3월 이후 산란계의 사육수수는 저점을 나타내고

표. 산란계 사육수수 변동추세

단위: 천수, 가구 산란계 사육수수

구 분	'04.6	9	12	'05.3	6	9	12	'06.3
6개월령이상	48,058	49,092	51,419	51,371	54,390	55,017	53,392	53,517
산란용마리수	37,298	36,990	37,507	37,767	39,926	40,068	41,512	42,595
사육가구수	2,043	2,075	2,043	2,069	2,314	2,364	2,310	1,863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관측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

있다가 월마다 산란계의 사육수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5년 9월에는 55,017천수에 달하는 최대의 사육수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산란계 사육수수의 증가는 '04년 6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48,058천수에서 '05년 9월 55,017천수로서 14.5%가 증가하였으며 산란계 사육농가 수는 '04년 6월 2,043농가에서 '05년 9월 2,364농가로 15.7%가 증가를 하였다. 이는 생산농가의 경제적인 여유도 한몫하여 무분별한 생산시설이 증대하였으며 시설증대에 따른 대농들의 사육규모가 크게 증가 하였으며 또한 산란계 농가의 고소득에 대한 기대감으로 생산농가가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는 '04년 3월 이전 산란계 사가 비어있던 계사에 산란계농가가 산란계사육을 하여 사육농가수의 증가로 이어졌다.

산란계사육수수의 증가로 인한 계란의 과잉생산으로 산지가격이 하락을 거듭하고 있으므로 산란계수수조절을 위한 '05년 8월 병아리생산업체의 자율적인 병아리 생산을 2백만수 이하로 생산할 것을 잠정적으로 협의하여 '05년 9월부터 '06년 1월까지 병아리 생산을 제한적으로 생산을 하였다.

이렇게 병아리공급을 제한적으로 생산을 하고 노계도태를 제대로 하였을 경우 '06년 3월 이후에는 산란계 사육수수의 감소로 계란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은 되었다. 그러나 산란계사육농가의 계획적인 생산 환경이 없는 상태에서 노계도태가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병아리 입식은 제한적으로 입식되었으나 농가의 계란가격상승 심리가 작용하여 노계도태지연으로 산란실용계의 증가로 이어져 계란의 품질저하와 소비감소로 이어져 계란가격의 하락을 더욱 부추기게 하였다.

산란용 실용계를 살펴보면 '04년 3월 6개월령 이상의 산란용 마리수는 37,298천수였으나 '05년 9월 40,068천수로서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마리수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06년 3월에는 42,595천수로서 7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서 60주령이상의 산란용 마리수는 약35%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06년 하반기 계란가격전망은 노계도태속도에 따라 계란가격이 안정이나 과잉생산으로 생산비 이하냐로 예측할 수 있다.

### 정확한 기록을 통한 원가분석이 필요한 시기

'04년 계란생산비는 개당 84.70원이며 '05년 생산비는 90.80원으로 발표되었다. '06년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계란발표가격대비 DC 30원~40원에 거래되고 있으므로 농가수취가격은 특란 기준 50원대 후반에서 80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확한 원가분석을 해보면 산란계사육농가의 적자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산란계사육농가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상황이다.

산란계 생산농가는 정확한 기록을 통한 원가분석과 입추시기와 도태시기를 계획하여 생산하여야 할 것이며 생산원가에서 중요한 것은 병아리구입비(중추구입비), 사료비, 자본이자 및 고정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감안하고 자가노력비 및 인건비 등이 감안되어야 한다.

산란계 사육농가를 보면 생산에서 계란판매대금대비 사료비를 제외하고 수익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생산원가 중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농가마다 차이는 나지



만 50%에서 60%까지 차지한다. 정확한 기록을 통한 원가분석으로 농가의 손익분석이 필요하며 계란가격에 관계없이 병아리입식시기와 노계도태시기를 정하여 계획된 생산이 필요한 시기이다. 물론 대다수의 산란계농가가 기록을 통한 원가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작금에 상황을 보면 계란의 '05년 하반기부터 대형유통업체에서는 계란행사가 매월 7일에서 길게는 14일씩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생산은 과잉되고 소비는 감소하여 생산자 및 계란유통상인들이 신규거래처를 잡기위해 낮은 계란가격으로 유통업체를 공략하고 있으므로 잦은 가격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유통업체만의 책임이아니라 과잉생산을 주도하는 생산자들의 무분별한 생산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대형할인점들의 할인행사시 일일추가 소요되는 계란물량은

약1백50만개로서 산지계란가격은 상승하고 노계도태물량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반증하는 것은 노계도태물량감소로 노계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되풀이되어 계란의 과잉생산을 왜곡시켜 계란의 산지가격은 안정되지 않고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 올해 하반기 노계도태에 따른 일시적인 가격안정예상

노계사육수수가 많기 때문에 노계도태로 인한 가격이 '06년 8월 이후에는 일시적으로는 계란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06년 11월 이후에는 계란생산량이 다시 많아지므로 계란가격은 불투명한 상태다. 물론 2~3년 전부터 닭의 질병이 심각한 수준으로 산란계의 산란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으므로 생산성에 적신호가 온 것은 현실이다. 이러한 생산 환경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새로운 계란의 소비가 창출되지 않는 한 계란가격의 상승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걱정한 산란계사육수수가 유지되어야 한다. '05년 계란의 소비가 국민1인당 202개로 '04년보다 9개가 증가를 하였다. 이는 '04년과 '05년의 계란생산량에서도 보듯이 '05년에는 증가되었으며 각 소매점의 포장계란판매에도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소포장계란의 매출이 감소하고 30구 포장 계란이 증가를 하였다.

'04년에는 소포장과 30구 판란의 비율이 5:5이었으나 '05년에는 4:6이며 '06년 상반기에는 3:7로 30구 판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잦은 가격행사로 인한 낮은 계란가격을 주고 구입 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

으며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변했다. 이러한 변화는 과잉생산이 주 원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5년 하반기부터 계란 가격은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아리가격은 900원에서 1,200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중추가격은 2,000원 후반대에서 3,000원 초반대에 형성되고 있다. 이는 산란계 생산물인 계란가격은 하락되고 있음에도 산란계입식의 향은 높은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04년도에서 '05년도 상반기에 높은 계란가격에 대한 환상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산란계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 생산시설의 증대로 인한 장기적인 전망이 불투명

물론 생산 환경의 변화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

으며 대량생산을 통한 원감절감의 일환으로 산란계 농가당 사육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으나 대량생산을 통한 원가는 절감될 수는 있으나 일정한 단계에 도달되면 생산비는 감소하지 않는다. 더 이상의 계란가격하락은 산란계 전체의 농가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산란계농가의 소비동향의 정확한 파악 없이는 '06년 하반기에도 산란계의 불황이 예고되고 있으므로 산란계농가의 정보교환이 요구된다. 또한 대농들의 사육시설증대도 일시적으로 산란계사육수수의 감소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계란의 소비창출이 없이는 계란가격이 저 난가속에서 하락과 상승이 반복될 것이며 새로운 소비창출과 산란계사육수수의 조절 없이는 '04년, '05년 상반기와 같은 호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질병상황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계**

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 자동화계사 청소대행

##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견운모, 목초액)

.....

**동광축산컨설팅(구,동광공업)**

대표 : 최 성 태  
휴대폰 : 011-374-8461~2

사무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전화 : (055)374-8461~2  
팩스 : (055)375-8461